

## 2005 국제의료법학대회 축하 메시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의료법학대회의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암논 카르미 회장님,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오신 법률가와 의료인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세기 이후 의학의 눈부신 발전은 인류의 건강과 생명 연장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의학 분야가 얼마나 법적·윤리적 뒷받침을 필요로 하는지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논의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생명공학 분야를 이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이번 대회가 열리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법학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존엄과 행복, 바로 그것입니다. 과학기술 탐구의 문은 활짝 열어 놓되, 인류사회의 상식과 양심에 의해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학기술의 지혜로운 활용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분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대회가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인류복지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머무시는 동안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